

12월 구역예배(주후 2012년 12월 14일, 금)

1. 본 문: 시편 90편 1-17절
2. 제 목: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3. 찬 송: 376, 370, 378장

본문은 시편 가운데 유일한 모세의 시로서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유한하며 무상한 인생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조함으로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I. 하나님은 인생의 거처가 되십니다.(1-2절)

1. 시편 90편은 누구의 기도인가요?
2. 1절에 주는 대대에 무엇이 되셨다고 했나요?
3. 주는 어느 때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이십니까?(2)

II. 인생은 허무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3-10절)

1. 주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돌아가게 하셨나요?(3)
2.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떠하다 했나요?(4)
3. 7절에 우리는 무엇에 소멸되며 무엇에 놀란다 했나요?
4. 주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은밀한 죄를 어떻게 하신다 했나요?(8)
5. 9절에 우리의 모든 날과 우리의 평생이 어떠하다 했나요?

III. 인생은 하나님께 삶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11-17)

1. 12절에서 모세는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2.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시어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하소서 했나요?
3.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어떻게 하소서 했나요?(14)
4. 우리를 무엇대로 기쁘게 하소서 했나요?(15)
5. 16절에 주의 행사와 주의 영광을 누구에게 나타내소서 했나요?
6.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어떻게 하소서 간구했나요?(17)

* 인생은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며 인생의 날은 신속히 지나갑니다. 올 해를 살아보니 더욱 실감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계수해 보는 지혜가 있기 바라며 내 인생의 남은 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